

# 목포시,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 허브 발돋움

### 미래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전문가 120여명 한자리에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친환경선박의 미래와 전기추진 세미나'를 개최하고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글로벌 조선·해운 분야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선박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통합하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조선·해운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했다. 다가오는 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산업계의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해 친환경선박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지자체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선박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

관, 대학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1부는 미래의 친환경선박과 해사산업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과 관련 기술개발 방향, 목포 실증인프라 구축현황 발표와 함께 친환경선박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2부는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 등 친환경 연료 추진 기술, 실증인프라와 표준화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상호교류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세미나가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오염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화 및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목포에서 친환경선박 기술세미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지자체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선박 관련 기업과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선박의 미래와 전기추진 세미나'가 최근 열렸다. <목포시 제공>

가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업체를 구축해 친환경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우리나

라 조선·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전남 섬 명절 여객선 확대

### 목포해수청 10월 3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기간 여객선은 평소보다 108회 증가한 2747회 운항하기로 했다.

귀성객이 몰리는 완도-청산-당목-서성항로는 여객선 1척을 추가 투입하고, 완도-청산, 화흥포-소안 등 총 3개 항로는 운항 횟수를 늘린다.

특별교통대책 추진 기간 여객선 이용객은 전년보다 2% 증가한 15만5000명으로 전망된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는 30일에는 3만1000명이 몰릴 것으로 목포해수청 측은 내다봤다.

목포해수청은 추석 연휴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마쳤다.

대책 기간에는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군, 미래 역량 키우는 '다문화 가족 동행 캠프'

### 이중언어 강점 바탕 자긍심 고취 가족간 갈등 해결 프로그램 진행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인재로 키운다."

신안군과 신안교육지원청이 최근 지역 다문화 가정 12세대(52명)를 대상으로 이중언어와 함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 가족 동행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엄마 나라말 배우기, 율플레이(역할극)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되는 가족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문화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가해 이중언어를 활용한 가족 소개, 춤, 노래 등의 가족 장기자랑을 펼쳐 자신감과 자존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남아시아 전통 놀이를 즐기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갈등 또는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역할극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다름없는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다문화 가족동행 캠프 참가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또 신안복지재단에서 캠프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과 학생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다가를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김광명 다문화협의회장은 "가족과 화합할 수 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관계자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한

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신안군에서는 이들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빵지순례 '해남고구마빵 피당시에'

## 농식품부 콘테스트 대상 수상

### 고구마 맛·모양 그대로...해풍감자빵 등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해남군은 '해남고구마빵 피당시에'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중 지역의 특산물로 경쟁력 있는 메뉴를 개발·판매해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 외식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23개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전문가 및 소비자심사단과 함께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매출·일자리 창출,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피당시에는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를 재료로 지난 2017년 고구마의 모양과 색깔을 그대로 살린 독자적인 해남고구마빵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구마빵 생산을 위해 해남고구마 100t, 유기농쌀 10t을 연간 매입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융복합 산업을 기반으로 '빵지순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피당시에 고구마빵.

하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기여를 하고 있다.

고구마빵을 매개로 지난해에만 13만여 명의 방문객이 피당시에를 찾았으며, 고구마르트, 해풍감자빵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현미 피당시에 대표는 "해남특산물을 활용해 해남에서만 만들 수 있는 빵을 통해 지역 농업과 상생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 3년만에 개최

### 군민 등 200여명 참석

진도군은 지난 23일 군내면 녹진 주발장에서 지역민 200여 명과 함께 '11회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은 진도군보훈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도군이 후원해 열렸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보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첫 행사를 연 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개 보훈단체 회원과 군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과 축사, 초청 가수 공연, 점심 식사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진도군(군수 김희수·왼쪽 네번째)이 후원에 지난 23일 열린 '11회 보훈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마음을 전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과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상항을 왕산리 초의선사 유적지에 있는 조선차역사박물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안군 제공>

# 무안 초의선사 빅데이터로 똑똑하게 즐기자

### 군, 관광공사와 컨설팅 현장 방문...탄생지 활성화 방안 논의

무안 초의선사 탄생지를 방대한 자료로 '똑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마련된다.

무안군은 최근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한국관광공사와 '2023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현장 방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월 이 공모사업에 무안군의 '초의 르네상스 부흥사업'을 선정했다.

현장 답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벤처기업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진행된 사전 답사에 이어 이번 답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의선사 탄생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과 관련한 통신, 카

드 결제 내역, 교통, 숙박, 소셜미디어(SNS)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자치단체의 관광 사업에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쓰인다.

관광공사는 올해 무안을 포함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초의선사탄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초의선사 차 문화 제다 학교 운영, 체험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초의선사 탄생지 활성화와 컨설팅을 잘 활용해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영광군 '해양쓰레기 저감' 최우수 기관 선정

### 마대에 담아 지정된 곳에 배출

영광군이 운영하는 해양쓰레기 지정 배출제도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에 뽑혔다.

영광군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3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사·군

·구 단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1일 열린 '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고 상금 1500만원도 받았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해 실효성 있는 사례를 내놓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시범사업으로 '해양쓰레기 마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은 어촌계 이름이 적힌 해양쓰레기 전용 마대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영광군이 지정된 장소에 배출되고 있다.

영광군은 내년부터 마대에 해양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은 사진과 문구를 실을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